



미국-이란 휴전 코멘트

미국-이란 2주간 휴전 합의 호르무즈 해협도 2주간 개방

휴전발표: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2주 휴전 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2주간 양측 공격이 중단되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이란 군사 관리 하에 재개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으나, 2주는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국제유가는 장중 10~15% 급락해 90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섹터별 단기 주가 반응: 납사 가격 하락 기대감으로 주가가 부진했던 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 안보 테마로 인해 상승했었던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 중이다.

미국-이란 협상 방향성은? 아직은 양측 의견 차이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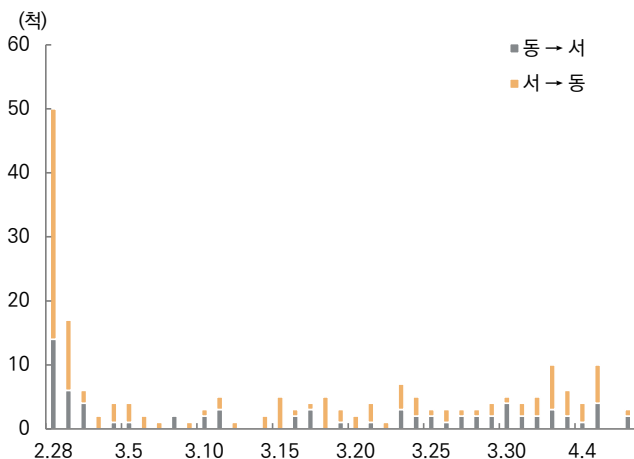
아직은 먼 사이: 미국과 이란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크다. 이번 협상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알려진 이란의 10가지 제안은 미국 측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다. 특히, 전쟁 피해 재건·배상 지원, 우라늄 농축권 인정,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통행료 부과 포함) 등이 주요 협상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적·완전 개방, 우라늄 농축 중단,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지역 프록시 지원 중단 등을 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국제유가 전망: 단기적으로 국제유가는 현재 수준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도 물류 병목, 육상 재고 소진, 유정 재가동 지연 등으로 공급 회복은 제한적이다. 정상화까지는 적어도 2~3개월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통행료 협상이 중요하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구체화된다면, 국제유가의 평균 레벨은 미국-이란 전쟁 이전 대비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

에너지리스트 코멘트 에너지 안보 테마 지속 예상

끝나지 않은 협상: 재생에너지 섹터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유가 하락으로 인한 단기 반작용은 나타날 수 있으나, 1) 불확실한 2주 후 협상 결과, 2)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가능성을 고려하면 에너지 안보 테마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



자료: Kple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이란의 10가지 제안

이란 측 요구안	
1	미국의 비공격 원칙 보장
2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
3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4	모든 1차 제재 해제
5	모든 2차 제재 해제
6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종료
7	모든 IAEA 이사회 결의 종료
8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9	미군의 지역 철수
10	레바논(헤즈볼라)에 대한 전쟁 중단 포함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료

자료: Tasnim New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